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차전 원정경기를 위해 암만에 도착한 올림픽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암만에서 1시간 떨어진 자르카시 프린스 모하메드 경기장에서 열린 훈련에서 밝은 표정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요르단戰 특명 "선제골 넣어라"

## 한국 오늘 밤 올림픽 축구 2차전 원정 경기

## 한 골차 져도 최종예선 진출 … 홈 텃세 변수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요르단 원정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23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의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과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1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마흐무드 자타라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들어 김태환(서울), 윤빛가람(경남·페널티킥), 김동섭(광주)의 연속골이 터져 3-1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승리한 한국은 요르단 원정에서 한 골 차로만 패해도 최종 3차 예선에 진출한다.

한국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요르단은 최소 3골은 넣어야 1, 2차전 합계 점수가 같아져 연장전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이 먼저 요르단 골문을 열면 쫓아오는 상대의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최종예선은 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국이 네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풀리그로 진행되며, 각 조 1위 세 팀이 런던 올림픽 본선에 직행한다.

선수들은 해발 900m의 고지대 등 낯선 환경과 홈 텃세를 이겨내고 반드시 최종 예선 진출권을 가져가겠다는 각오뿐이다.

홍명보 감독은 2차전을 앞두고 "전술상의 변화는 없다. 우리가 해온 대로 경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수 배치는 1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이 될 전망이다.

선수 구성도 1차전 때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1차전에서 전반 40분 교체 투입돼 후반 쐐기골을 터트렸던 김동섭이 배천석(숭실대) 대신 먼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선발진은 1차전 그대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행을 눈앞에 둔 지동원(전남)이 처진 스트라이커로 나서 김동섭과 호흡을 맞추고,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민우(사간 도스)와 김태환(서울)이 좌·우 날개로 출전해 측면 공격을 이끈다.

김태환은 1차전에서 동점골을 터트리고 윤빛가람이 찬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만점짜리 활약을 펼쳐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조영철(니가타)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줬다.

김민우 역시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몸놀림을 보였고, 지동원 등 중앙의 공격수들과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공·수를 조율하는 중앙 미드필더의 임무는 윤빛가람(경남)과 문기한(서울)이 맡는다.

1차전 패배를 만회하려는 요르단의 거센 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포백(4-back) 수비진은 윤석영(전남)-김영권(제주)-홍정호(제주)-오재석(강원)으로 꾸린다.

골문은 하강진(성남)이 지킨다. /연합뉴스

# "지성·청용 형과 대결 설레요"

## EPL 선덜랜드 지동원

## "도전할 기회 와 기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로 이적하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스트라이커 지동원(20·전남)이 "6개월 안에 팀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소화해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올림픽대표팀의 일원으로 요르단 암만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요르단과의 2차전 원정경기를 준비 중인 지동원은 22일 프리미어리그 진출 소감과 선덜랜드를 선택한 배경, 목표 등을 밝혔다.

지동원은 "선덜랜드가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프리미어리그 선배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청용(볼턴)과 함께 경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 기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올림픽대표팀에 있고 우리 팀이 런던 올림픽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축구팬이 기대하는 중요한 원정 경기를 해야 한다. 팀의 공격수로서 최선을 다해 2차 예선을 통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동원은 또 "프리미어리그가 큰 무대이고 많은 선수가 희망하는 리그인데다 선덜랜드에서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 길게는 6개월 안에 팀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만족할 만큼 소화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22일 지동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로의 이적을 공식발표했다.

전남은 이날 "지동원이 선덜랜드 AFC와 3년 계약을 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은 메디컬 테스트 이후인 6월말 경에 이루어질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적료와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은 양 구단의 합의하에 밝히지 않았지만, 이적료 350만달러(약 38억원)에 연봉은 1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선덜랜드의 러브콜에 이어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과 샬케04(독일)등이 지동원 영입전에 나서면서 이적 협상이 길어졌었다.

지동원의 K리그 고별경기는 치러지지 못할 전망이다.

전남은 26일 강원과의 홈경기를 통해 K리그 고별경기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지동원이 메디컬테스트를 위해 요르단과의 올림픽 대표팀 경기가 끝난 이후 영국으로 바로 이동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동원은 전남의 유소년팀인 광양제철고 출신으로 우선 지명을 통해 2010년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었다. 데뷔 첫해 26경기에 출전해 8골4도움을 기록하면서 경남 윤빛가람과 신인왕을 다퉜던 지동원은 FA컵에서는 4경기에 나와 5골3도움을 올리며 득점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아시안게임과 2011년 아시안컵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국가대표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다.

지동원은 지난 겨울 일본 전지훈련 도중 무릎부상을 당해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두 번째 K리그 무대에서는 13경기에 출전해 3골1도움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프리미어리그 팬들 밤잠 설칠 일 많아졌다

## 지성·청용에 지동원까지

## 태극전사 대결 흥미진진

## 박주영 가세 땐 더 볼만

축구 대표팀 공격수 지동원(20)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로 진출하면서 2011-2012시즌에는 세 명의 한국 선수가 '축구의 본고장' 잉글랜드 무대를 누비게 됐다.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23·볼턴 원더러스)에 이어 지동원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한국 팬들이 밤잠을 설칠 일이 더 많아진 것이다.

또 최근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박주영(26·AS모나코)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방향을 정하게 되면 '태극전사 맞대결'은 더 자주 벌어질 전망이다.

2011-2012시즌 한국 선수 간 첫 맞대결은 9월10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볼턴 원더러스의 경기다. 박지성과 이청용은 지난해 9월 정규리그에서 한 차례 맞붙어 2-2로 비겼다.

이어 이청용의 볼턴은 지동원이 가세한 선덜랜드와 10월22일 홈경기를 치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선덜랜드전은 11월5일 펼쳐진다. 공교롭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정규리그 최종전을 2012년 5월13일 선덜랜드를 상대로 치르게 됐다. 올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규리그 마지막 한 경기를 남기고서야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선덜랜드와의 최종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양학선 도마 신기술 선보인다

## 7월 코리아컵 체조

남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의 최강자인 양학선(19·한체대)이 7월 9~10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2011 코리아컵 고양 국제체조대회에서 신기술을 공개한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에서 4위에 오르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학선은 지난겨울부터 신기술을 연마하느라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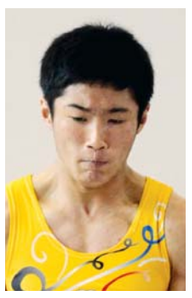
광주출신의 양학선이 연마한 새 기술은 도마를 향해 질풍같이 쇄도해 공중에서 두 바퀴 반(900도 회전)을 비틀어 돌고서 착지하는 기존의 '여2'에서 한 단계 진화해 세 바퀴(180도 회전)를 돈 뒤 바닥에 내려서는 고난도 테크닉이다.

공중 연기 후 종전에는 도마를 보고 착지했다면 지금은 반 바퀴 회전이 늘면서 도마를 등지고 선다.

양학선은 지난 주말 끝난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국내 심판과 지도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비장의 무기'를 선보였고 15.650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착지에서도 한 발자국만 움직였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다.

한충식 대한체조협회 강화위원장(한체대 교수)은 22일 "우리끼리는 신기술의 난도가 7.0에서 0.2점 상승한 7.2점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체조연맹(FIG) 기술위원의 정확한 난도 평가를 받기 위해 양학선이 코리아컵 대회에서 신기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컵 대회와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FIG 기술위원들이 7.2점짜리로 평가한다면 양학선의 이름을 딴 새 기술이 FIG 채점 규정에 등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Golf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리즈골프(Liz Golf)
프라임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 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주식회사 리즈골프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①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②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③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 상품명 | 가입금액 | 보증금 | 가입기간 | 회원자격 | 골프서비스 | 숙박서비스 | 모집인원 |
|---|---|---|---|---|---|---|---|
| 프라임 호남VIP | 15,200만원 | 전 액 보증금 | 5년 | 기 명-1인 무기명-3인 | 주중8회, 주말4회/월 (월12회 / 년108회) | 27평형대 년 60박 | 9명 |
| 플래티늄 | 6,400만원 | | | 기 명-1인 무기명-1인 | 주중3회, 주말1회/월 (월4회 / 년39회) | 27평형대 년 15박 | 32명 |
| 프라임 | 3,800만원 | | | 기 명-1인 | 주중2회, 주말1회/월 (월3회 / 년27회) | 25평형대 년 15박 | |

프라임 호남 VIP란?
▶ 광주/전남 법인회원을 위해 리즈골프 호남지사 만의 단독상품으로 법인 Business용 Golf Membership 회원권입니다.

기타 회원혜택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 골프투어시 제주 골프텔 연 15박 회원대우)
▶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지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代)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